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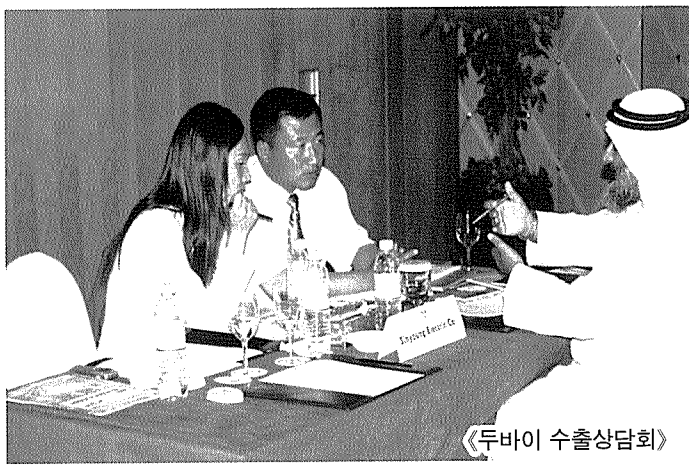
(주)E & I 이창형 이사

우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와 미래에도 큰 영향력을 가진 중동지역으로 기대와 부담을 가방 가득히 가지고 “중동 시장 개척단”은 두바이 행 비행기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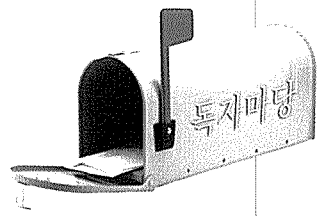
장시간 걸친 비행에 지쳐 내린 새벽 두바이 공항은 우리 “시개단”의 모습과 흡사했다. 새벽이지만 매우 부산한 모습으로 밝아올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곳 중동은 낮 시간보다는 태양이 지고 난 이후가 더욱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국적인 감상도 잠시, 반갑게 맞이해 주는 코트라 직원의 안내로 호텔로 이동하면서 이번 방문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진흥회와 코트라의 협조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느껴졌다. 작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환대와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는 그동안 수많은 출장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잠시 떠올리게 했다. 힘든 하루였지만,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품고 긴 하루를 마감했다.

열사의 땅!
기회의 땅!



《두바이 수출상담회》





다음날 점심식사 시간에 두바이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있었다. 분명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운 나라중 하나이나 길은 있을 것이다. 진흥회와 코트라의 지원으로 우리에게 이미 기본적인 것은 준비가 되었다. 나머지는 우리 각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인들에 의해 상권이 형성된 것 달리, 두바이는 인도사람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고, 고유가 시대의 수혜로 본격적인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우리 중견업체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시장이었다. 현지를 이동하면서 본 수 많은 건설현장은 이곳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반증해 주는 반면, 현장 투어서 본 낙후된 전력설비와 저녁시간의 활동적인 모습에서는 전력설비 증가 필요는 어찌면 당연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욕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그 욕심에 일찍 일어난 행사당일 아침, 행사장은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잠시후 상담이 시작되었다. 중전기기 특성상 통역이 쉽지 않아 전기전문가(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들 사이에 통역을 먼저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항공사(EK) 승무원으로 몸에 익숙한 서비스와 적극성으로 오후 상담시간은 일사천리로 끝이 났다. 본 시개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통역을 하는 분들과의 만남이었다. 미모의 승무원과의 함께한 상담은 두바이 통역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교포분들이 노년의 대선배로서 들려준 성공담과 경험담은 그 자체가 사우디 시장에 대한 큰 정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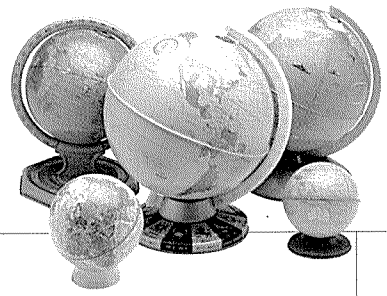
특히, 이란에서는 우리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면 서 다가오는 이란인 때문에 무척 당황했고, 이란인과 결혼을 해서 온 한국 여자분들의 통역 또한 매우 이색적인 광경이었다.

상담은 기대이상으로 열기가 과열되었다. 사실



《테헤란 수출상담회》

열사의 땅!
기회의 땅!



본 시개단의 매번 상담은 예정보다 많은 현지 업체의 방문으로 준비된 자료와 명함의 부족하여, 이미 사우디(2번째)에서부터 카탈로그와 명함을 긴급 복사하여 사용하는 업체도 발생했다

두바이 마지막 밤, LG산전의 진출 성공담을 통해 두바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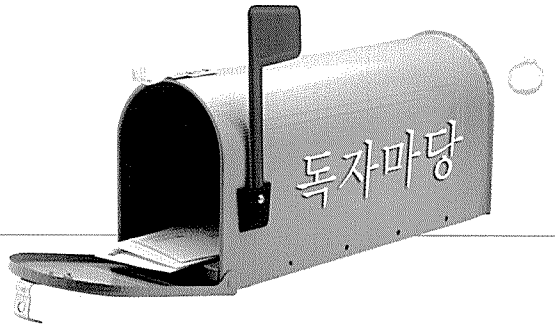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예멘, 오만, 이라크 등 중동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며 특히, 두바이 전력청 납품이 이루어지면 다른 곳은 수월히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두바이 진입에는 장시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 코트라 단장님의 적극적으로 본 시개단의 두바이 진입을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은 두바이의 최고의 성과였다.

두바이 공항에서 마지막 맥주를 한 잔 하고 사우디 리야드로 이동하였다. 사우디는 외국인에 대한 비개방적이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눈 이외는 노출이 금지되어 있어 함께한 (주)크로스티이씨 최유진 사장의 부담이 컸다. 특히, 이란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에서는 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란 여자분 중 한분이 자신의 여유분이 있어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런 면에서 중동과 이란(이란인들은 자신들은 중동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음) 일반적인 여행으로는 다시 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우디 상담일 점심식사는 사우디 대사님께서 한국식당에서 준비를 해주어 모처럼 입맛에 맞는 기분 좋은 식사를 했으나, 식당문을 나설 때 난 정말 열사의 땅을 실감했다.

순간 숨이 막히고 더위에 마치 한증막에 옷을 입고 막 들어선 기분이었다. 뒤에서 나오는 대사님의 한마디! "이 정도는 참을 만 한 것이고, 다음 달부터는 더욱 심해 질 것입니다."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 일행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열사의 땅!
기회의 땅!



우리 행사가 왜 오후 4시에 다시 시작하는가를 짐작 할 수 있었다. 이곳은 하루에 두 번 출근을 한다고 한다. 오전에 한번 다시 오후 4시경에 한번 이렇게 이곳은 더위를 피해가고 있었다. 덕분에 사우디 상담에서는 늦은 밤까지 상담이 이루어져 우리 일행은 매우 지친 하루를 마감했는데 지금 본인도 그 날 저녁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음날 일부는 현지 공장 방문, 남은 일행은 전혀 구경거리가 없다는 리야드 시내를 잠시 둘러본 후 리야드를 떠났다. 이곳은 목요일,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우리에게도 잠시의 달콤한 휴식시간이 생겨 고대문명의 발상지 이집트로 이동하여 이번 출장에서의 유일한 여행기분을 만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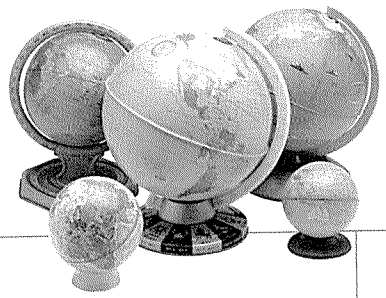


과거에는 고대 찬란했던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무상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미약한 나라로 전락해 버린 현실 때문에 서글픔마저 밀려 왔다. 화장실 사용에도 팁을 요구하고 사진만 찍어도 팁을 요구하는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의 구걸을 하는 듯한 모습에서 이곳의 현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농업과 관광자원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현재 모습과 지상 최대 문화유산(피라미드, 신전, 등)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다시 최종 목적지인 이란의 테헤란으로 바뀐 일정을 이어 갔다. 이곳 역시 새벽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코트라 직원께 죄송스럽고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안내에 따라 호텔로 이동을 하였다. 이동 중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 시장정보는 지금까지보다는 매우 가능성이 커 보였다. 실제로 일행 중 이미 이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듯 여기에는 서울로가 있다는 것이 아마 은근히 친밀성 느끼게 했다.

바쁜 일정으로 지쳐 일어난 테헤란의 아침. 호텔을 나서자 고도 3800m 높은 산의 눈이 이곳이 중

얼
사
의
땅
!
기
획
의
땅
!



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다. 테헤란 또한 고도가 1800m나 되어 잠시동안 둘러본 시내관광에서 쉽게 지쳤고, 심지어 두통 증상을 나타내는 분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던 분도 그 날 저녁만큼은 본인보다 먼저 잠이 들어 고지대를 실감했다.(이란 전을 위해 중국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했다는 축구팀 감독이 이해되었다.)

행사일 총알(카달로그, 명함) 떨어진 상태로 행사장을 향하는 마음은 편치 않았으나, 코트라에서 긴급지원(복사본)으로 행사준비는 문제 없었다. 특이한 점은 행사장 입구에 종교경찰이 배치되어 행동을 감사하는 듯하여 잠시 긴장감을 느꼈으나, 이미 설명 드린 것 같이 특이한 통역과의 만남에서 긴장감은 사라지고 상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제일 바쁜 행사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져 점심은 교대로 도시락으로 해결하여야만 했으며, 이미 국산제품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난 2곳과는 달리 매우 열성적인 상담이 이루어졌다. 물론 제품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이란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행사 마무리 끝까지 상담은 계속 이루어졌고, 어떤 상담자는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자고 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에서 계약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직감하였다. 너무 많은 상담이 하루에 이루어져 정신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분명 이란은 또 하나의 기회의 땅이었다 이란 자체로 한반도의 7배가 넘는 국토에 미 개발된 지역이 많고, 페르시아 만을 끼고 9개가 넘는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이곳을 잘 활용만 한다면 큰 교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두바이의 전문 상인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우리와 더 잘 어울리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이곳에 기대와 희망의 발자취를 남기고 서둘러 공항으로 이동을 하였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결과보고에 대한 부담이 교차하면서 서울행 비행기로 오르면서 “시개단”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당장의 결과와 주문은 없었지만 매우 큰 효과와 성과가 있었다. 한국 전기산업진흥회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각 국 코트라의 적극적인 현지도움으로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그 고마움에 답하고자 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님과 박병일 실장님, 또 많은 나이 차이에도 너그러운 이해해 주신 선배님들, 타 지역 “시개단”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

역사의 땅!
기회의 땅!